

## 손수 차씨 심고 가꾸어 널리 전파

### 열반 1212주년 맞아 김교각 스님과 차

8월 20일 경기도 남양주 백천사(주지 무구)에서는 '지장왕보살'로 추앙받고 있는 교각 스님의 열반 1212주년을 맞아 제9회 김교각 스님 추모 헌다례와 제2회 지장왕보살 큰 축제가 열렸다. 구화산의 신화, 김교각 스님 다큐영화 상영을 시작으로 백천사대중회의 헌다례 등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200여 명의 차인들이 참석해 교각 스님의 생애와 차 정신을 되짚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최근 차계에서 더욱 조명 받고 있는 교각 스님의 삶과 차 인연을 살펴본다.



'지장왕보살'로 추앙받고 있는 김교각 스님은 중국에 신라의 차를 전한 것으로 유명하다. 최근 국내에서도 김교각 스님의 차 정신을 기리는 행사가 잇따르고 있다. 사진은 중국 안휘성 구화산 육신보전에 모셔진 김교각 스님상.

### 백천사, 추모 헌다례 및 지장왕보살 큰 축제 열어

▷ 교각 스님은?

### 신라 왕족 출신, 中 구화산서 75년간 수행하며 대중 교화

최근 불교계와 차계에서 추모 행사가 잇따르고 있는 것에 반해, 김교각(696~794) 스님의 일대기와 행적을 사료로 통해 명쾌히 밝혀지지 않았었다.

김교각 스님은 신라 효소왕 5년(696)에 태어났다. 성은 김씨이고 제36대 경덕왕의 가까운 친척 또는 신라 왕족이라고 한다. <구화산화상사기(九華山化城寺記)>에는 '신라 왕자로서 김씨 왕족과 근속(新羅王子金氏近屬)'으로, <송고승전(宋高僧傳)>에는 '신라 국왕의 지숙(新羅國王支屬)'로 기록되어 있다. 일설에는 31대 신문왕의 아들 보질도 태자가 교각 스님이라는 주장도 있다.

신라의 왕족 가문에서 태어난 스님은 신분을 버리고 출가해 '지장'이란 법명을 받았다. 성덕왕 19년(720) 키우던 개 선청을 데리고 중국으로 건너간 뒤 명산을 찾아다니며 구화산에 이른다.

구화산 화상사 동쪽 골짜기 절벽 위 동굴에서 수행생활을 시작한 스님은 흰모래와 짚을 섞어 죽을 끓여 먹으면서 정진했다고 한다. 이를 지켜본 청양현의 장자 민양화가 스님의 법력에 감화되어 구화산을 시주했고, 스님을 위해 절을 지었는데 이 절이 구화산의 첫 번째 사찰인 화상사다. 이때가

757년이다. 스님은 입적할 때까지 75년간 구화산에 머물며 대중을 교화했다. 스님의 명성은 신라에도 알려져 수많은 구법승들이 구화산을 찾아 가르침을 청했다.

스님은 당 정원 10년, 신라 원성왕 10년(794) 음력 7월 30일에 99세로 열반에 들었다. 3년 뒤 제자들이 스님의 법신을 안장하기 위해 석환(石函)을 열었는데, 스님의 법신이 생전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다고 한다. 제자들은 스님을 지장보살의 화신이라 믿고 797년 구화산 남대에 등신불을 모시고 그 위에 육신전을 지었다.

이후 구화산은 무하 스님을 비롯해 12번의 등신불이 출현하며 중국 4대 불교명산이자 지장보살성지로 자리매김했다.

▷ 교각 스님의 차 인연

### '금지차' '구화차' 등 전해져 우리나라 최초 茶詩도 지어

'지장왕보살' 교각 스님은 '차인'으로서도 큰 족적을 남겼다. 중국으로 건너갈 때 신라 '금지차(金地茶)' 씨와 법씨인 황립도(黃粒稻), '선청(善淸)'이란 삼삼개 등 다섯 가지를 가지고 갔다고 전한다. 구화산에 머물며 수행했던 스님은 손수 차씨를 심고 가꾸었다고 한다.

교각 스님이 가지고 간 차씨에 대해서는

여러 사서에서 그 기록을 찾을 수 있다. 1669년 지어진 <개옹다사(介翁茶史)>에서는 '구화산에 공경차(空梗茶)가 있는데 이는 김지장이 심은 것이다(是金地藏所植)'고 전한다. <구화산지(九華山志)>에서는 '금지차(金地茶)는 즐기기 속이 가는 대나무처럼 비어 있다(梗空如) 전하는데 김지장이 가져온 차씨였다고 한다(相傳金地藏携來種)'는 기록이 보인다.

또한 스님은 우리나라 최초의 차시(茶詩)라 할 수 있는 '동자를 보내며(送童子下山)'라는 시를 지었다. <전당시(全唐詩)>에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차 달이고 꽃 희롱하기도 이제는 그만(烹茗中罷弄花)'이라는 구절을 살필 수 있다. 지금도 중국 구화산 일대에서는 금지차, 구화차 등의 이름으로 지장차로 전해지고 있다.

이 같은 스님의 차 인연을 기리기 위한 노력도 국내에서 이어지고 있다.

남양주 백천사 주지 무구 스님은 1996년 국내에서 처음으로 '신라왕자 김교각전'을 개최했고, 지난 2004년에는 백천사 내에 '김교각 스님 기념관'을 세워 교각 스님 관련 유물 및 자료를 전시하고 있다.

또한 김동리의 소설 <등신불>의 주인공으로 등장한 이후 수많은 소설로 거듭나기도 했다. 소설가 정찬주씨는 2004년 교각 스님의 생애를 소설로 엮은 <다불(茶佛)>(랜덤하우스중앙)을, 정형남씨는 지난 해 <천년의 찻씨 한알>을 각각 펴냈다. 현재 한중수교 15주년을 기념한 드라마 '대한 국민교각'도 제작 중이다.

여수령 기자 snopy@buddhapia.com

### 명사 11인의 차 인연담 '와온 바다에서 차를 마시다'

차를 마시는 사람들에게는 차와 얽힌 인연담이 한 두 가지쯤은 있게 마련이다.

<와온 바다에서 차를 마시다>(예문)는 우리시대의 명사 11인이 차를 마시게 된 사연과 차로 인연을 맺게 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풀어 놓은 책이다. 책 제목은 수많은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준 곳으로 유명한 전남 순천의 와온(臥溫) 바닷가에서 차를 마시며 느낀 단상을 적은 시인 곽재구씨의 글 제목에서 따왔다.

육십 평생 차 만드는 일에 매진해 온 지허 스님(순천 금문사 주지)에게 차는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주는 다리'이며, 바쁜 시간 틈을 내 연구실에서 차를 마시는 미술사학자 강우방씨에게는 '잠시나마 자기성찰을 할 수 있는 휴식'이다.

초의선사의 일대기를 그린 소설 <초의>의 저자 소설가 한승원씨는 '사람이 차를 마신다는 것은, 땅의 신과 하늘의 신의 깊은 만남을 뜻한다'고 정의한다. 또한 문화평론가 조병준씨는 인도에서 맛본 짜이와 짜이 한 잔으로 인연을 맺은 사람들 이야기를 풀어 놓으며 차를 '나눔의 연금술사'라 부른다. 이 밖에 수필가 정목일, 영화평론가 김영진, 국문학자 유건실, 전통문화연구가 이연자씨 등이 차에 얽힌 잔잔한 이야기를 풀어냈다. 9천8백원.

여수령 기자

**보이차 전문점**

진전도보이·진전오룡·철관음·오룡차  
대홍포·화차·인삼오룡 등 40여가지의 차

**瑞榮普洱**

■ 조계사 건너편 TEL 02)722-0855  
H.P 017-411-0882



### 5. 신비의 음료

④ 루이 14세와 커피

17세기 중엽, 프랑스는 '해가 지지 않는 나라'일 정도로 최전성기를 누렸다.

루이 14세(1638~1715)는 귀족들을 무력하게 만들었고 '집이 곧 국가'라는 절대 왕정의 상징 속에 예술적 안목이나 가치조차도 자기의 눈높이로 강요했다. 특히 루이 14세는 커피를 마시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으나 프랑스의 커피문화를 이룩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왕이다.

마르세유에서 유행한 커피는 처음에는 파리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지 못했다. 커피가 본격적으로 파리 지엔(Parisians, 파리로타이)들의 관

위한 의도였으며 프랑스 내정을 파악할 수 있는 충분한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한편 전쟁으로 국가재정이 어렵게 된 루이 14세는 군비 지급 마련을 위해 커피를 전매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루이 14세는 다음과 같은 칙령을 발표한다. "마르세유와 무망의 다른 항구를 통해 들어오는 커피, 차, 초콜릿의 수입을 금지한다." "커피에 완두나 콩, 기타 작물과 혼합하여 판매하는 것을 금한다." 등등. 그러나 이러한 전매제도는 결국 커피 값을 높여지게 되었으며 시장에서 외면을 받으면서 전매권을 장악했던 다량도 파산하게 되었다.

당시 커피는 아직 대중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었으므로 전매제도는 사실상 시기상조이었다. 이

### 전매제도 실패는 자유시장경제 전환 계기

### 카페, 파리 시민의 정신적 안식처로 자리

심을 받게 된 것은 터키 술탄이만 아가 대사가 프랑스와의 외교관계를 해결하기 위해 파리에 거주했던 것이 큰 계기가 됐다. 자기 과시와 관심 받기를 좋아했던 루이 14세는 술탄



터키 술탄이만 아가 대사가 파리에 유행시킨 터키 금속 공예품인 커피포트와 설탕 그릇, 잔.

레이만 아가 대사와 만남을 위해 궁전의 온갖 실내장식과 호사스러운 의상을 마련했고 신하들조차 치장을 하고 그를 맞이하게 했다.

술탄이만 아가 또한 루이 14세의 환심을 사기 위해 상당량의 커피와 잔, 포트, 의상 등 터키의 신비한 문화를 가지고 와서 궁정에 소개한다. 이후 술탄이만 아가는 파리에 저택을 구입하여 터키식으로 집안을 꾸몄다. 페르시아 풍의 분수와 집안의 은은한 잠미 향기, 기대앉아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공간, 무릎을 꿇은 하인들에게서 시중을 받으며 뜨겁고 쓴 커피를 마시는 분위기를 만들었다. 이때부터 커피에 설탕을 넣어 마시기도 한다.

이것은 파리 귀족, 특히 여성들의 관심을 끌었다. 저택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커피 기구, 중국 도자기, 잔, 냅킨 등 프랑스에서 아직 유행되지 않았던 물품들에 관심을 가졌다. 이러한 것들은 프랑스 궁정, 군비 상황 등 자세한 많은 정보를 입수하기

후 전매제도의 거둬진 실패는 자유로운 시장경제 체제로 전환되는 계기가 되었다.

프랑스의 카페는 영국과는 달리 남녀의 출입이 자유로웠으며 공무원, 도박꾼, 노동자 등 평민들의 집합소였다. 이들은 이곳에 간다는 자책만으로 큰 즐거움을 느꼈다.

카페 주인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증류주 제조업을 하는 '음료 공급업자'들에게 허가증을 주어 운영할 수 있게 했다. 허가증은 커피를 맛있게 마시기 위한 기술을 증명해 보이거나, 교육을 받았다는 증거가 아니라 단지 왕의 부족한 재정을 채우기 위한 수단이었다. 18세기가 되면서 종교와 사회적 변화 그리고 다방면에 걸친 개혁의 징후들이 출현했으며 문화를 통해 커피의 유용성이 거론되기도 했다. 유명한 철학자이었던 몽테스키외는 "커피는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고 배이스 총명해지게 한다"고까지 극찬했다.

이 시대의 카페는 파리 시민들의 정신적 안식처이자 커피 한 잔을 놓고 허투루 일일이 사색하고, 말할 수 있는 시민들의 자유로운 장소였다.

■ 이창숙(동아시아 차문화연구소 연구원)

삼사순례 및 소원성취

## 기도도량 동해사

매년 10월 12일부터 11월 20일까지 밤, 낮없이 사리탑위에 범비가 내려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충만해 있어 중생들의 어떤 소원도 이루어 지는 곳 **기도영험도량인 동해사**에 오시어 기도의 참 맛을 느껴 보세요

범비오는곳 사리보탑

※ 대형주자장, 방생기도처 5분 소요  
낙산사 10분소요  
후휴암 15분소요

강원도 양양군 순양면 학포리  
범비오는곳 동해사  
**033)672-2900**

##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최신 기와강판, 스테이트형강판  
슬라브, 사철(대우전, 요사채, 산신각),  
창고, 공장, 가정집 (전문시공)**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전국무료전화 080-011-8504**  
(비호경사)

서울·경기도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7638-1117  
전라도 : 010-2311-0157

**현대칼라지붕공사**

## 2006 학년도 불교법패작법전문원 제1기 수강생 모집

세벽종성, 조석예불, 사시불공, 각단불공, 천도제, 49제, 사물(태정, 북, 목탁, 요령)다루는법, 구명사식, 점안의식 등 삼주권공(범음법패의식)을 기초과정부터 전문과정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으로 교육합니다. 불교의식을 전혀 모르는 초심자도 여법하게 의식을 진행할 수 있도록 책임지도 합니다. 스님, 포교사, 재가불자, 장차 출가를 계획하고 계신분 등 불교의식에 관심이 있으신분은 좋은인연 되시길 기원합니다.

◆ 개강 : 2006년 9월 6일 수요일 오전 10시

학 과	수업 일	기간
기초의식반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12시	1년
삼주권공반	적법반 : 매주 수요일 오후 1시-오후 3시 범패반 : 매주 수요일 오후 4시-오후 6시	2년

**교육내용**

- 기초의식반(범음법, 목탁불공) : 세벽종성, 조석예불, 사시불공, 각단정, 각단불공, 천도제, 49제, 구명사식, 점안의식
- 삼주권공반(적법반) : <바리줄>요점바라, 관음바라, 화의제바라, 사다리바라, 천수바라, 명바라, 내림계바라, <나비줄>사방요선, 도량계, 다계, 운삼계, 오공양, 모란찬, 삼귀의, 괴경이, 향화계
- 삼주권공반(범패반) : 초향향, 등계, 정례, 합장계, 고히계, 개계, 왜수계, 북청계, 사방찬, 향수나열, 육건이, 가지계, 사물다루는법, 천도제(범음법패), 49제, 구명사식, 점안의식

▶ 구비서류 : 이력서 1통, 수강신청서(소정양식) 1부, 사진 2매

- 기초반강사 : 원각스님 ● 적법반강사 : 자인스님
- 범패반강사 : 도담스님

※ **사찰에서 각종의식(49제, 천도제, 점안의식, 구명사식, 예수재, 영산재) 봉행해드립니다.**

## 불교법패작법전문원

강원도 원주시 일산동 189-28(시청옆) ☎ 033)731-7759  
E-mail : bumpae@yahoo.co.kr

소중한 인연을 위한 정성      고품격 정수 발효식품

## 몸에 좋은 조청으로 심신을 새롭게 한다

전통 비법으로 산에서 스님에게 직접 만든... **산속 조청**

- ◆ 산속 조청은 공해시대, 무엇을 먹어야 안심할까 고민하는 당신에게 참 좋은 인연입니다.
- ◆ 산속 조청은 산천 초목의 뿌리 잎, 줄기, 열매의 영양소를 고스란히 뽑아내어 우리전통의 조청으로 고아낸 고품격 정수 발효식품입니다.
- ◆ 산속 조청은 비구니 스님들의 청정심과 지극한 정성으로 만들어 집니다.

숯이오르지않는 **산속 참꽃 조청** 1.2kg

아열, 냉증, 위장장애, 피로 독소, 적혈의 해소, 신장조혈, 항암, 원기회복등에 기여

## 산속 약도라지조청

1.2kg

기관지, 천식, 기침, 거담, 배농작용, 폐기능, 호흡기질환, 피로회복등에 기여

국민건강을 위하여 100% 천연으로 만들었습니다

## 산속 조청 웰빙 자연당

- 각종 요리, 무침, 조림 등 반찬 만들 때
- 떡, 빵, 과일 드실 때      ● 고추장, 김치 담그실 때

**1100g×2병 = 18,000원**

옛날 방법 그대로 만든 순수한 맛,  
이제는 물엿 대신 산속조청 웰빙 자연당을 쓰십시오.

- 주문 및 문의 : **대한불교조계종 금융사**  
**054)372-1366**
- 입 금 처 : 농협 727077-52-056761(원순회)

맑은 마음 깊은 정성 **산속 조청원**